

Region's strength and charm letter

09/06/2017
vol1 in Japan

WRITER

新潟大学 経済学部 准教授
有元 知史(Satoshi Arimoto)

TITLE AND ABSTRACT

타이틀: 먹을 거리로써의 니가타(新潟)! :니가타(新潟)의 식(食)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개요: 니가타현의 매력의 하나로 『식(食)』을 들 수 있습니다. 쌀이나 일본술 등은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져 있습니다. 기타로 많은 매력적인 식(食)과 관련된 재산이 있습니다. 본기사는 특산물이나 명산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산·식육·일본술·커피·빵·일본식 과자, 식(食)과 관련된 개성적이며 동시에 파워풀한 니가타의 중소기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COMPANY IN THIS LETTER

株式会社ウオシヨク : 雪室에 의한 熟成肉의 製造販売
麒麟山酒造株式会社 : 辛口日本酒의 老舗酒蔵
株式会社鈴木コ-ヒー : 新潟市内의 커피문화를 떠받친다
新潟中央水産市場株式会社 : 水産의 도시 新潟를 견인한다
株式会社丸屋本店 : 老舗和菓子 Maker
株式会社山重 : 新潟市民으로 부터 사랑받는 大人気빵집

NOTE

본레터는, 중소기업 매력발신 프로젝트로서, 식(食)을 유지하는 니가타(新潟)의 중소기업을 학생이 취재해 신문에 실은 것을, 필자가 재정리한 것입니다.

먹거리 니가타(新潟)! 新潟의 食을 떠받치는 中小企業

有元知史(Satoshi Arimoto)

国立大学法人新潟大学 経済学部 准教授

개요

니가타현(新潟縣)의 매력 중의 하나에 『먹거리』을 들 수 있습니다. 쌀이나 사케 등은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매력적인 먹거리와 관련된 재산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특산물이나 명산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산, 식육, 사케, 커피, 빵, 일본과자 등, 먹거리에 관한 개성적이며 파워풀한 니가타(新潟)의 중소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러한 회사를 통하여, 니가타 먹거리의 매력을 전하고 싶습니다.

1. 풍요로운 니가타의 먹거리

사사로운 이야기입니다만, 현직에 취업하기 이전에 니가타에 대해 갖고 있었던 이미지는, 쌀, 사케, 설국 정도였습니다. 그 이미지가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니가타의 먹거리의 풍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니가타에 와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니가타의 풋콩(에다마메)의 맛 등은, 10년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만, 지금이야말로 도쿄에서도 톱 브랜드의 풋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가타라고 하면 헤기소바를 연상하는 사람도 많지만, 라면문화가 퍼져 있는 것도 놀라움의 하나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가타의 먹거리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소니생명보험이 2016년 12월에 공표한 NEWS LETTER 에서는, 다음과 같은 랭킹이 보고되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현(縣)에서 자랑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랭킹이 있었습니다.

먹거리의 맛이 자랑		술의 맛이 자랑	
1位	石川県	新潟県	
2位	富山県	高知県	
3位	高知県	秋田県	
4位	山形県	鹿児島県	
5位	新潟県	山形県	

필자가 참고자료에서 일부 발췌

니가타 현민이 어느정도 먹거리에 대하여 자신과 자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고 싶은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랭킹도 있어, 거기에서는 홋카이도가 압도적으로 1위로, 니가타현(新潟縣)은 톱 10에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좋은 술이 있는 니가타현을 더 어필해 갈 필요를

느낍니다.

2. 중소기업 매력발신 프로젝트

니가타현의 겸손이라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들어 왔습니다. 니가타의 매력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의 파워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부터, 우리 교수사이에서는, 니가타 중소기업의 매력이나 강점은 연구뿐만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관심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느껴 왔습니다.



따라서, 니가타의 중소기업 경영자와 인터뷰하고, 신문의 형태로 정리하여 널리 정보발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 기획한 것이 중소기업매력발신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각양각색의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 점은 별도의 기회에 소개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세무사나 사회보험노무사 등의 외부의 협력을 얻어, 공동으로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 년도의 기획에서는, 니가타의 먹거리를 알린다는 메인 테마를 내걸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관심있는 학생 24 명이 모였습니다. 2016 년 11 월부터 2017 년 3 월에 걸쳐서 6 개의 학생팀으로 나뉘어져서 6 개 회사를 취재했습니다. 각 회사의 공통점은, 물론 비즈니스 전개는 각양각색입니다만, 니가타의 중소기업기업으로서, 니가타에 뿌리 내린 먹거리에 관한 비즈니스에 대하여 강한 결의와 자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그 6 개 회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니가타의 먹거리 매력을 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3. 니가타의 먹거리를 꽃피운 개성적인 6 개 회사

중소기업 매력발신 프로젝트로 취재한 6 개의 기업을 소개합니다. 또한, 필자는 학생들의 취재에 한 회사를 동행하였지만, 이 기사는 학생들이 취재한 중소기업 매력발신신문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정리/소개하는 것입니다.

• 新潟中央水産市場 (株)

니가타에 대하여, 해산물의 이미지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데라도마리(寺泊) 등 유명한 어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가타가 바닷가 항구도시라는 이미지는 그다지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니가타 중앙수산물시장 주식회사는, 단지 니가타의 생선유통뿐만 아니라, 니가타가 생선의 거리라는 것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하여 온 회사입니다. 니가타 중앙구에는, “비어 Bandai”라고 하는 니가타의 맛있는 식품재료가 모두 모인 시설이 있습니다. 정말로, 니가타의 먹거리의 발신기지입니다. 후지타(藤田) 사장은, 유통 구조의 변화에 진력하여, 니가타의 생선을 신선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동시에, “비어 Bandai”나

“고향마을” 등, 니가타의 먹거리를 내외에 발신하는 거점만들기에도 적극적으로 시도해 온 회사입니다.

오늘 저녁에 맛있는회는 어떠신지요?

• 麒麟山酒造株式会社

“기린산 주조주식회사”는 니가타 카에츠(下越) 지방을 대표하는 양조장 중에 하나입니다. 씩씩하고 담백한 사케를 대표하는 상표로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자주 마시는 사케입니다. 기린산의 HP로부터의 발췌입니다만, 다음과 같은 소개문이 있습니다.

『양조장이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원료로, 지역내의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지역 날씨속에서, 지역의 장인에 의해 빚어진, 지역 사람들이 생활의 일부로서 익숙해져 친숙하게 마셔 주는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 「시골 술」의 본연의 자세를 목표로 하는 양조장... 그것이 기린산주조입니다.』

기린산은, 정말로 니가타를 소중히 여기는 기업입니다. 아가마치(阿賀町)의 기린산의 기슭에 위치하고, 그 고장의 쌀과 물에 적합한 술을 만들고, 또 니가타의 술집에서 벌써 일품으로 인정받는 씩씩한 맛의 술을 오랫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기린산 회장과의 대담에서, 니가타현에 뿌리 내린 양조장이면서, 사케를 세계에 널리 퍼뜨리는 것이나 장래를 짚어지는 젊은이들에게 대한 기대 등, 정말 감동어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의 식사의 친구로 사케는 어떠신지요?

• 株式会社ウオショク

여러분, 雪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간단히 말하면, 눈을 이용한 천연의 냉장고입니다. “우오쇼쿠”의 홈페이지에서 인용하겠습니다.

『겨울에 내린 눈을 지면에 땅을 판 구멍에 모아놓고, 짚 등에서 덮은 雪室은 생선식품의 냉장보존에 이용해 왔습니다. 옛날부터 해왔던 설국의 지혜입니다. 오늘날은, 대량의 눈을 건물 안에 저장하여, 대용량이며 동시에 장기적인 雪室이 가능합니다.』로 써 있습니다. 니가타에서는, 雪室을 이용한 물산품의 기업을 넘어 통일 브랜드로서, 에치고(越後) 雪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오쇼쿠”는 雪室을 이용하여 고기를 숙성시킨 숙성고기의 브랜드로 전국적으로도 알려지게 된 회사입니다. 雪室 브랜드는 숙성고기에 한하지 않고, 雪室 야채나 여러가지 가공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어, 미디어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오쇼쿠”는 니가타로 부터 세계에 발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니가타에 대한 깊은 생각과, 자사만이 아니고 니가타를 강력하게 발신해 간다는 기개에 차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저녁은 조금 맛있는 고기가 어떠신지요?

• 株式会社丸屋本店

니가타의 선물로서 “사사단고”를 드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식회사 마루야 본점은 니가타를 대표하는 일본식 과자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창업 139년의 전통있는 가게이면서, 현재는 일본식 과자에 멈추지 않고 서양과자의 제조/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마루야 본점의 홈페이지의 회사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치고(越後)의 겨울, 산들에 쌓인 눈이 봄을 맞이하면서, 맑은 물이 되어 토지를 촉촉하게 합니다. 에치고(越後)의 「물」과 「흙」에 육성된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장인의 손끝으로 과자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소박하고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良寛”님과 같이, 한결같이 만드는 과자에, 에치고(越後)의 풍토를 베이게 하고 싶다고 기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마루야(丸屋) 본점은, 「어린 마음의 과자 장인」이라는 말을 소중히 하고 있습니다. 장인정신을 유지하면서, 地産訪消를 추진하기 위해, 그 고장의 생산 농가 등을 소중히 하고 있습니다. 니가타의 여행 목적이 일본식 과자를 사러 가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식후에 일본식 과자는 어떠신지요?

• 株式会社鈴木コーヒー

니가타의 먹거리이라고 하면 일본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니가타의 거리를 돌아다녀 보십시오. 정말로 많은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줄지어 있는 미식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스즈키(鈴木) 커피는, 그러한 니가타의 먹거리 곁에 있는 커피를 떠받치는 기업입니다. 스즈키 커피는, 니가타현내의 호텔, 레스토랑, 카페 등과의 거래나 개발을 하는 업무점 판매사업을 중심으로, 직영점 사업이나 오피스 커피까지, 그 사업 서비스는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스즈키 커피는, “우오쇼쿠”에서 말한 雪室 커피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비어 Bandai”에는, 스즈키 커피의 플래그 샵(flag shop) 『니가타 커피도매상』이 있어, 세계적으로도 귀한 커피 원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3차 커피 붐이라고 말해지는 요즘입니다만, 스즈키 커피는, 니가타의 커피문화를 유지하는 키 컴퍼니입니다.

식후에 맛있는 커피는 어떠신지요?

• 株式会社 山重

니가타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식회사 야마시게(山重)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시가마(石窯) 공방 사프란”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알고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도 사프란에는 몇 번이나 발길을 옮긴 적이 있습니다만, 휴일 아침은 놀라울 정도로 붐비어, 계산대에 기다란 대열이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빵의 맛은 물론입니다만, 모든 세대가 기뻐하는 상품의 다양성에 압도됩니다. 사프란이 사랑받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토인스페이스”의 설치, 빵을 구입한 손님에게의 커피 한 잔의 무료 제공 등 즐거운 서비스도 있습니다. 현재, 매출액의 7할을 직영점 4 점포,

나머지 3 할을 공장이 차지한다고 합니다만, 위세좋은 종업원의 말이 어지럽게 퍼지고, 서비스도 철저하여, 몇 번이나 발길을 옮기고 싶은 점포로서 이 지역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야마시게(山重)는, 사실은 15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전통있는 가게 기업입니다. 창업 당시부터 빵을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6대째 사장의 대담한 사업전개와 종업원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철저히하여, 니가타 시민에게 사랑받는 빵집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는 맛있는 빵이 어떠신지요?

4. 결론

중소기업 매력발신 프로젝트로부터, 니가타 먹거리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 이와같은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어떻신지요. 6개 회사의 비즈니스를 통하여, 니가타의 먹거리에 대한 인상이 조금 바뀌었다면, 기사작성자로서 기쁩 뿐입니다. 이들 회사는, 니가타 특히 카에츠(下越)지역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물론, 그 외 많은 중소기업이 니가타의 먹거리를 유지하고, 먹거리의 매력을 전국 혹은 해외에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기업들 뿐입니다. 학생들의 취재활동을 통하여 느끼는 것은, 각각의 기업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영역이나 마켓은 다르지만, 공통되는 것은 니가타라는 지역을 자랑으로 삼고, 또한 니가타의 먹거리를 널리 전파한다는 사명을 갖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니가타로 맛거리를 찾아 오십시오. 먹거리를 목적으로 오셔도, 충분히 그 기대에 보답하는, 그것이 니가타입니다.

한편, 각기업의 경영방침이나 고생담에 관해서는, 중소기업 매력발신신문으로서, 학생의 시점에서 신문의 형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팬찮으시다면 그쪽도 참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취재에 협력해 주신 각 기업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링크

• 취재기업

株式会社우오쇼크 <http://www.uoshoku.co.jp/>

麒麟山酒造株式会社 <http://www.kirinzan.co.jp/>

株式会社鈴木커피 <https://suzukicoffee.co.jp/>

新潟中央水産市場株式会社 <http://www.sakana-bandai.com/>

株式会社丸屋本店 <http://www.maruyahonten.com/>

株式会社山重 <http://www.saffron-niigata.jp/>

• 비어 Bandai <http://www.bandai-nigiwai.jp/>

• 越後雪室屋 <http://www.yukimuroya.jp/>

• 中小企業魅力発信新聞 Facebook

• SMEs Knowledge Network Portal